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4, 973 - 1002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김 의 철[†]
중앙대 심리학과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삶의 질 인식과 관련된 토착심리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청소년과 성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뿐만 아니라, 하위영역으로서 가정생활과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다. 또한 청소년 경우는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성인 경우는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하위영역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각 영역에 대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세대별 성별 및 성취정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3,406명으로서, 청소년 1,331명과 성인 2,075명이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자료는 2004년 4월-6월에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종합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서, 청소년은 자기조절, 학업성취, 원만한 인간관계가, 성인은 경제적 요인, 자기조절, 화목한 가정이 중요하였다. 둘째, 청소년과 성인은 삶의 질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을 더욱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셋째, 성별로는 여가생활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이 더 높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성취정도별로는 높은 성취를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화목한 가족관계, 경제적 여유를 대표적으로 지적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는 친구관계, 학업성취였다. 성인의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는 남녀 모두 원만한 인간관계를 대표적으로 지적했다. 직장생활성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성취 상집단은 성취감을, 중집단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의철,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uicholk@chol.com

하집단은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청소년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성인은 경제적 여유를 가장 많이 지각하였다.

주요어: 삶의 질, 토착심리,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인간관계, 회복한 가정, 자기 조절

삶의 질에 대한 한국 사람의 표상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모두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로서 공통되는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다른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가? 또는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은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공유된 삶의 질에 대한 표상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 사람만이 갖는 고유한 문화에 토대한 토착적인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이 공존하는가?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대해 전자보다 후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학문적 성과들이 누적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국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야 한다는 시각과 체계적인 연구들(조공호, 2003; 최상진, 2000; 한덕웅, 2003)이 부각되고 있다. 토착심리학의 학문적인 체계화를 촉발시킨 Kim과 Berry(1993)의 시도나,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가 과학적 심리학의 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제공하며, 그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접근방법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이론 모형(Kim, 1999), 토착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Kim & Park, 2004b),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Kim, Park, & Park, 1999),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4a, 2004b) 등을,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

결과들의 예로 들 수 있다. 토착심리학의 철학을 기초로 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 들로는, 예컨대 성취(Kim & Park, 2003), 일탈행 동(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신뢰(김의철, 박영신, 2004), 자기개념(Kim & Park, 2004a), 가족 가치(Kim & Park, 2000), 부모자녀관계(Park & Kim, 2003), 사회인식(김의철, 박영신, 예정) 등이 있다. 이질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밝혀진 결과들은, 한국 사람의 토착심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최근에 주관적인 안녕감을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논의(Diener & Suh, 2000)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주관적인 안녕감이 문화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Triandis, 2000), 연령별 성별 주관적 안녕감의 문화에 따른 차이(Lucas & Gohm, 2000), 국가별 개인의 경제 수입과 주관적인 안녕감의 관계 분석(Diener & Oishi, 2000) 등이 있어왔다. 문화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은 결국, 동 서양의 각 문화가 가정하는 세계관과 인간관의 차이 및 사람들의 심리적인 역동에서의 차이와 밀접히 관련된다. 이러한 측면들을 Suh & Diener(2000)는 자기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한 바 있으며, Kitayama와 Markus(2000)는 자기개념과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먼저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Lucas와 Diener(2004)는 서양의 심리학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란 개인의 시각에서 본 안녕감(Well-being from individual's own perspective)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안녕감의 정의적 차원(Affective dimension of well-being)은 정서와 기분(emotions, moods)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안녕감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와 기분으로는 행복(happiness), 기쁨(joy), 격려가 되는 자극적 흥분(excitement)을 들 수 있고, 부정적 정서와 기분으로는 공포(fear) 분노(anger) 슬픔(sadness)을 들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안녕감이 적용되는 삶의 영역으로, 건강, 가족생활, 직업, 사회생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질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Diener와 Suh(2000)는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질문 및 '삶의 질'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에 와서 안녕감을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삶의 질'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여러 사회에서의 '주관적 안녕감'을 비교하려는 시도를 통해,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큰 '주관적 안녕감'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이 특정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다는 결론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그러한 판단이 매우

가치 의존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삶의 질이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아래의 글에서 '주관적 안녕감'보다는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안녕감(well-being)이 높다고 개인이 지각할 때,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 높아 지는데, 결국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두 개념은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그렇다고 해서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곧바로 삶의 질 지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개념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안녕감만이 아니라, 광의의 객관적인 사회적 지표들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웰빙(well-being)'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웰빙 섬유' '웰빙 식품' '웰빙 아파트'만이 아니라, 보다 편리하고 만족한 삶의 차원과 관련하여 '웰빙 가전' '웰빙 다이어트' 등이 부각되고, 여가생활의 면에서 '웰빙 여행' 등, 요즘 우리 주변에서 웰빙이 붙은 일상용어를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저널리즘이나 광고 마케팅 등 상업주의와 연관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상업주의가 일반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웰빙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한 것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04년 현재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삶의 질은 28위로 설명되고 있다 (중앙일보, 2004년 7월 16일 자). 이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2004년 7월 15일에 공개한 세계 177개국의 '인간개발지수(HDI) 2004'에서 한국이 28위를 기록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사는 2002년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된 것으로서, 인간개발지수는 평균 수명, 문맹률, 1인당 국민소득(GDP), 등 '삶의 질'을 종합 분석한 지표이다. 유엔개발계획의 2003년 발표에서 한국은 30위에 올랐었다. 사실상 한국 전쟁 이후에 GDP \$100에도 못 미치던 후진국이었지만, 1996년 이후 \$10,000이 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었고, IMF지원이라는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지금 한국은 \$20,000을 꿈꾸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은 엄청난 발전을 했고,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심리학 분야에서도 삶의 질이나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웰빙'이라는 사회적 유행어로서가 아니라 경험 과학적 연구의 주제로 삼으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교육 건강 운동 조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취를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연결해 보려는 시각(박영신, 김의철 역, 2001)이 있었고,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Park, 2002), 성취와 일탈행동 및 생활만족도를 심리적이고 관계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추적(Park & Kim, 2004)해 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보다 직접적으로 삶의 질이나 행복한 삶 및 주관적 안녕감 등을 심리학 분야에서 경험과학적

인 방법을 통해 분석한 일련의 결과들이 있다. 김명소, 차경호와 임지영(2002)의 연구는 서양의 학자들이 제시한 주관적 안녕감(Diener, 1984)이나 심리적 안녕감(Ryff, 1989, Ryff & Keyes, 1995)의 개념구조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한국 대학생 대상으로 삶의 질이나 안녕감의 구성요소들을 탐색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과 한영석(2003)은 대학생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로 확대하여 한국인이 지각하는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과 임지영(2003)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질문지를 기초로, 전국의 20대에서 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성취 및 자기수용'과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박은실, 박영신, 김의철과 정갑순(2004)은 한국사회 삶의 질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각을 연구한 바 있다.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는, 국민들의 노력(28.1%) 경제적 요인(22.5%) 문화/여가생활(18.9%) 원만한 인간관계(13.3%) 교육 수준(6.0%) 올바른 정책(6.0%) 민족적 자부심(3.5%) 기타(1.8%)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는, 경제 불안(24.3%) 정치 불안(18.9%) 시민의식 결여(17.1%) 부정부패/ 비리(11.4%) 집단 이기주의(11.0%) 여가생활 부족(8.8%) 과도한 교육열(5.7%)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은 국민들의 노력이나 근면성과 같은 구성원의 자기조절, 국가차원의 경제성장이나 개인의 경제력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 문화생활과 만

족한 여가생활, 개인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사회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나 연고주의의 청산, 올바른 정책을 펴는 정치적인 안정과 부정 부패를 청산한 투명한 사회, 교육수준과 교육적 성취 등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Park, Kim, & Lee, 2004)과 자기조절(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정치문화와 사회인식(김의철, 박영신, 예정) 등이 토착심리로서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과 밀접히 관련된다.

한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인생관이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 본 한덕웅과 이경성(2003)의 연구 결과는, 박은실 등(2004)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높은 선호도를 보인 인생관은, 현실에서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노력을 통한 자기조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들이다. 한국 사람들의 자기조절 경향은 자기개념, 성취의식, 스트레스, 안전의식 등 일상생활의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박영신, 2001)된 바 있다.

집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세대별로 생활만족을 예측하는 구성요소들이 다름을 시사하는 결과가 있다.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과 한영석(2003)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성취와 자기수용감, 및 경제력이 공통된 요

인으로 나타났지만, 각 연령층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20대에는 사회정치, 30대에는 이타심, 40대에는 자녀, 50대에는 종교, 60대에는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요인이 독특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세대간의 차이가 전통적이거나 진보적인 가치(김명연, 김의철, 박영신, 2000)나 미국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는 정치문화 인식(김의철, 박영신, 오나라, 2003)에서 만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표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유기설(2003)이 한국 남녀의 삶의 질 차이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및 행복한 삶에서 성차가 확인되었다.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부정적 정서를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목표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으나, 대인관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그리고 행복한 삶에서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생활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20대에서 60대의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삶의 질의 요소를 분석한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과 한영석(2003)의 연구에서, 여가생활 등의 하위척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세대별 성별 등 다양한 하위집단 특성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된 표상이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2000년대 초엽 현 시

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기저에 있는 토착심리를 이해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로 구체화시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어떠한가? 즉 삶의 질의 하위영역들 즉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한편 청소년과 성인 세대별, 성별로 가정생활, 여가생활, 종합적인 삶에 대한 표상에서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가? 또한 성취정도별 성별로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 삶의 질에 대한 표상에서의 차이와 공통점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과 성인은 자기의 삶의 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지각하고 있는가? 삶의 질에 대한 표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생활의 각 하위 영역별로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가? 또한 세대별 성별로 가정생활, 여가생활, 종합적인 삶의 질에 대해, 그리고 성취정도별 성별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삶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러한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탐색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분석은 가정생활, 여가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의 측면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생활, 성인의 경우는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도 하위영역으로 더불어 포함함으로써, 청소년과 성인에게 각각 의미있는 생활 터전에서의 삶의 질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하위집단별 차이도 분석할 계획이다. 즉 청소년과 성인의 세대집단별

분석과, 성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별히 청소년만 응답한 학교생활과, 성인만 응답한 직장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세대별 분석이 곤란하므로 성취정도별 및 성별로 분석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분석은 토착심리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질적인 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 수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질 수준의 하위 영역은, 삶의 질 표상에서와 같이,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로 하고,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집단별 성별 가정생활, 여가생활, 전반적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과, 성취정도별 성별 학교생활, 직장생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든 분석은 양적 자료를 기초로 추리통계를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아직 시도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험적 증거들이 충분히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탐구해 나가기로 한다.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삶의 질 수준이 토착심리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세대, 성, 성취정도와 같은 하위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즉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토착심리(Kim & Park, 2004)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터하여,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삶의 영역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Lucas & Diener,

2004)과 이 외에도 학교생활 및 생활의 전체 영역에서 접근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 세대차, 성차 및 성취정도별 차이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토해 보기로 한다.

방법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은 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으로 분류된다. 청소년 집단은 초 중 후기를 모두 포함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8개 학급, 남녀 중학교 2학년 8학급, 일반계와 실업계 남녀 고등학교 2학년 8학급, 대학교 5개 반에서, 각각 320명씩을 1,600명을 표집 대상으로 계획하였다. 성인집단은 표집된 초 중 고 청소년들의 부와 모 2,560명 및 초 중 고등학교 교사 320명으로 표집을 계획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답지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대상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대상 수는 3,406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680명, 여자가 1,726명이었다. 분석대상 중에서 청소년이 1,331명(초 236명, 중 312명, 인문고 227명, 실업고 256명, 대학생 300명), 성인이 2,075명(초등학생의 부와 모 470명, 중학생의

부와 모 470명,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와 모 439명, 실업계 고등학생의 부와 모 403명, 초 중 고등학교 교사 293명)이었다.

최종 분석대상과 관련된 배경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균 연령은, 청소년이 17.23세, 성인이 43.10세 이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 수준은, 상(11.1%) 중상(34.9%) 중(31.7%) 중하(18.1%) 하(4.2%)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성인이 지각한 현재 직업에서의 성취정도는 상(6.7%) 중상(34.0%) 중(45.4%) 중하(11.7%) 하(2.4%)로 분포하였다. 성인집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직업은 무직(24.8%) 단순노동직(6.2%) 자영업(20.1%) 사무직(9.5%) 기술직(8.6%) 관리직(5.2%) 전문직(25.6%)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은 초등 졸(1.5%) 중 졸(5.8%) 고 졸(41.4%) 대 졸(43.9%) 대학원 졸(7.4%)로서 고 졸과 대 졸이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성인의 응답은 매우 낮다(3.4%) 비교적 낮다(14.4%) 보통이다(65.5%) 비교적 높다(15.9%) 매우 높다(0.8%)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집단 경우에, 교직경력은 평균 12.87년이었으며, 중앙치는 13년, 최빈치는 5년이였다. 분석대상자 중에서 최저 교직경력은 2년, 최고 교직경력은 39년이였다. 분석대상 교사의 소속은 초등학교(32.4%) 중학교(36.2%) 고등학교(31.4%)에 고루 분포하였다. 직위는, 현직 교사(76.0%), 부장교사(23.6%) 및 교장(0.3%)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대상

성별	세대별	청소년	성인	전체
	남자		690	990
여자		641	1,085	1,726
계		1,331	2,075	3,406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표집대상에 따라 청소년용, 부모용, 교사용 질문지의 세 가지 형태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용 질문지와,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 질문지에서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문항 예: 현재 당신의 가정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쓰세요.),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을(문항 예: 현재 당신의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숫자를 쓰세요.) 질문하였다. 청소년과 성인 응답자 모두 가정생활, 여가생활, 종합적인 삶의 질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청소년용 질문지에서는 학교생활 삶의 질에 대해, 성인용 질문지에서는 직장생활 삶의 질을 각각 추가하였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자유반응형으로서, 각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1가지만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을 질문하는 문항에 대한 답지는 모두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1-매우 낮다, 3-약간 낮다, 5-약간 높다, 7-매우 높다. 따라서 4점은 삶의 질 수준을 중간 정도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성취 및 직업에서 성취 정도는, 질문지에서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개 답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업성취수준 집단 및 직업성취수준 집단을 위한 분류 기준은 동일하였다. 상과 중상은 상 집단으로, 하와 중하는 하 집단으로, 그리고 중은 중 집단으로 정리되었다.

각 질문지의 배경정보 문항은 표집대상에 따

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용 질문지에서는 연령과 성별 및 현재 평균성적을 질문하였다. 한편 성인 중에서도 부모용 질문지에서는 연령과 성별 및 현재 직업(주부인 경우는 가정)에서의 성취 정도, 직업 유형, 교육정도,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사용 질문지에서는 연령과 성별, 현재 교직에서의 성취 정도, 직업, 교육정도, 가정의 경제수준, 교직경력, 현직, 현재 소속한 학교를 질문하였다.

실시 및 분석 방법

질문지는 2004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자료 회수는 4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었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 집단으로 표집 청소년들의 부모 및 교사들을 표집하여 회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초, 중, 고, 대학생은 학교 수업시간에 담당 교사(교수)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진지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질문지 실시에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를 모두 나누어 주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하였다. 각 학급의 담임 선생님들이 부모용 질문지를 회수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교사 표집을 하기 위해 각 학교 교무실로 방문하여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에 질문지에 응답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추후에 질문지를 수합하였다. 성실한 응답을 부탁하기 위해, 모든 응답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들 중에서 불성실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대상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분석대상

질문지에서 자유응답을 한 질적인 자료는 응답자들의 반응 그대로를 모두 컴퓨터에 삽입되었다. 동질적인 반응들을 묶어 대표하는 항목 이름을 부여하고, 이러한 항목들 중에 질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을 재조직하여 범주 이름을 부여하였다. 항목과 범주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이 분야의 전문가 세 사람의 검토와 논의과정이 있었다. 모든 항목과 범주에 양적인 값을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분석틀(coding scheme)을 기초로 하여, 모든 문항들에 대한 질적 응답을 해당하는 양적인 값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입력된 양적인 값들을 토대로 빈도분석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정리한 분석표가 제작되었다. 전체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 뿐만 아니라, 세대별 성별 하위집단별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편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은 질문지에서 양적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하위집단별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응답된 양적 자료를 모두 컴퓨터에 입력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결과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된다. 첫째,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둘째,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의 차이이다. 이러한 분석은 네 개의 하위영역,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과, 종합적인 삶의 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청소년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에 대해, 성인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세대별 차이는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차이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검토되었는데, 단 학교생활에서는 청소년집단만이, 직장생활에서는 성인집단만이 분석대상이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사회적 표상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여러 하위영역별 및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2에서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는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

표 2.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

가정생활	집단	전체	세대별		성별	
			청소년	성인	남자	여자
1. 화목한 가족관계		1411 (42.4)	709 (54.2)	702 (34.6)	675 (41.3)	736 (43.4)
2. 경제적 여유		909 (27.3)	237 (18.1)	672 (33.2)	452 (27.7)	456 (26.9)
3. 여가생활		485 (14.6)	146 (11.2)	339 (16.7)	242 (14.8)	243 (14.3)
4. 자기조절		248 (7.4)	136 (10.4)	112 (5.5)	138 (8.4)	110 (6.5)
5. 건강		161 (4.8)	42 (3.2)	119 (5.9)	77 (4.7)	84 (5.0)
6. 기타		117 (3.5)	37 (2.8)	80 (4.0)	50 (3.1)	67 (4.0)
계		3331 (100.0)	1307 (100.0)	2024 (100.0)	1635 (100.0)	1696 (100.0)

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세대별로 보면, 청소년과 성인 집단 모두 '화목한 가족관계'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가 '경제적 여유', 세 번째가 '여가생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성인의 전체적인 반응경향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반응비율을 볼 때, 성인은 응답자의 30% 이상이 '화목한 가족관계'와 거의 유사한 비율로 '경제적 여유'를 지적함으로써, 성인은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분석 결과는 반응범주의 순서뿐만 아니라, 반응율에서까지도 두 집단에서 매우 유사한 반응패턴을 나타내었다. 즉 '화목한 가족관계'에 대해 남자와 여자 모두 40% 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여유'에 대해 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세 번째로는 '여가생활'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반수에 가까운 비율이 '화목한 가족관계'를 지적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경제적 여유'로서 전체 응답자의 30%에 가까운 비율이 이러한 반응을 하였다. 10% 이상의 응답자가 '여가생활'을 지적하였으며, 이외에도 '자기조절' '건강'이 가정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

한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화목한 가족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명 중에서 1명 정도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여유'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세대별로는 성인이 '경제적 여유'를 더욱 비중있게 인식하였다.

청소년 집단만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학업성취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상 중 하 집단 모두 응답자의 과반수가 '친구관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업성취'에 대한 반응이 높은 점에서도 세 하위 집단이 모두 일치하였다.

학업성취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로 분석한 결과도 차이가 없이 거의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반수 이상이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친구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남녀 집단 모두 20% 이상의 응답자가 '학업성취'의 중요성을 지적함으로써,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두 집단 모두 '교육환경'을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반응하였다.

표 3.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

학교생활	집단	전체	학업성취별			성별	
			상	중	하	남자	여자
1. 친구관계		709 (53.9)	327 (55.4)	215 (52.4)	155 (54.2)	350 (51.2)	359 (56.8)
2. 학업성취		284 (21.6)	115 (19.5)	101 (24.6)	59 (20.6)	148 (21.7)	136 (21.5)
3. 교육환경		132 (10.0)	74 (12.5)	35 (8.5)	21 (7.3)	80 (11.7)	52 (8.2)
4. 여가생활		89 (6.8)	41 (6.9)	28 (6.8)	18 (6.3)	50 (7.3)	39 (6.2)
5. 자기조절		52 (4.0)	18 (3.1)	14 (3.4)	18 (6.3)	25 (3.7)	27 (4.3)
6. 기타		49 (3.7)	15 (2.5)	17 (4.1)	15 (5.2)	30 (4.4)	19 (3.0)
계		1315 (100.0)	590 (100.0)	410 (100.0)	286 (100.0)	683 (100.0)	632 (100.0)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친구관계'를 지적함으로써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20% 이상의 응답자가 '학업성취'를 지적함으로써, 한국 청소년들 10명 중 5명 이상은 학교에서의 친구관계가, 2명 이상은 학업성취 정도에 따라, 학교에서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또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무관하게 동일하였다.

표 4는 성인집단만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성인 전체 분석대상에 비해 응답자수가 적은 이유는, 여자들의 경우에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고, 남자들도 무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 거의 응답을 하지 않고, 그 외의 무응답자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직장생활 성취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하위집단별로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직장생활 성취 상집단은 '성취감'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비슷한 비율로 지적하였다. '경제적 요인'은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으나, '성취감'이나 '원만한 인간관계'에 대한 반응이 모두 20% 이상으로 나온 것에 비해, 10%대의 반응율을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직장생활 성취 하 집단은 '경제적 요인'을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근무조건'이나 '시간적 여유'를 지적하였고, '성취감'은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생활 성취 중집단의 경우는 '원만한 인간관계'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 '성취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직장생활에서의 성취수준에 따라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인식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남자와 여자 성인이 모두 20% 이상의 응답자가,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지적함으로써 일치된 반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남자는 '경제적 요인' '성취감'의 순서로 응답한 반면에, 여자는 '성취감' '경제적 요인'의 순서로 응답하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반응율을 비교해 볼 때, 비슷하게

표 4.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

직장생활	집단	전체	학업성취별			성별	
			상	중	하	남자	여자
1. 원만한 인간관계		354 (23.9)	134 (22.9)	149 (24.2)	43 (22.5)	203 (23.5)	151 (24.4)
2. 경제적 요인		278 (18.8)	83 (14.2)	112 (18.2)	57 (29.8)	171 (19.8)	107 (17.3)
3. 성취감		258 (17.4)	135 (23.1)	91 (14.8)	20 (10.5)	148 (17.2)	110 (17.8)
4. 자기조절/ 계발		179 (12.1)	79 (13.5)	77 (12.5)	14 (7.3)	105 (12.2)	74 (12.0)
5. 근무조건		157 (10.6)	51 (8.7)	76 (12.3)	24 (12.6)	101 (11.7)	56 (9.0)
6. 시간적 여유		153 (10.3)	56 (9.6)	68 (11.0)	23 (12.0)	81 (9.4)	72 (11.6)
7. 능력		41 (2.8)	20 (3.4)	17 (2.8)	3 (1.6)	24 (2.8)	17 (2.7)
8. 기타		61 (4.1)	26 (4.5)	26 (4.2)	7 (3.7)	29 (3.4)	32 (5.2)
계		1481 (100.0)	584 (100.0)	616 (100.0)	191 (100.0)	862 (100.0)	619 (100.0)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자 성인은 ‘원만한 인간관계’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을 좀더 비중있게 생각하는 반면에, 여자 성인은 ‘원만한 인간관계’ 다음으로 ‘성취감’을 좀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반응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성인들의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 ‘성취감’ ‘자기조절/계발’ ‘근무조건’ ‘시간적 여유’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모두 10~20% 사이의 반응율을 보였다. 한편 ‘능력’이라는 반응은 2.8%로 극히 일부만이 지적함으로써, 성인의 직장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을 제외한 개인의 능력 측면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자기조절/계발’이 ‘능력’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그런데 직장생활에서의 성취수준에 따라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인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직장에서 성취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에 대한 ‘성취감’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성취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였고, 성취수준이 중간인 집단은 상집단이나 하집단에 비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삶의 질 향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표 5는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 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다양한 취미생활’이라고 반응하고, ‘경제적 여유’는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보였으나 ‘다양한 취미생활’에 비해 훨씬 낮은 반응율을 보였다. 반면에 성인 집단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냈고,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취미생활’도 20% 이상의 반응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즉 남자와 여자 집단 모두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경제적 여유’가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세 번째로는 ‘시간적 여유’를, 네 번째로는 ‘자기조절’을 동일하게 지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반응율의 정도에서도 비슷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장 많이 부각

표 5.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

여가생활	집단	전체	세대별		성별	
			청소년	성인	남자	여자
1. 다양한 취미생활		978 (30.9)	530 (41.8)	448 (23.6)	520 (33.2)	458 (28.6)
2. 경제적 여유		749 (23.6)	186 (14.7)	563 (29.6)	376 (24.0)	373 (23.3)
3. 시간적 여유		515 (16.3)	148 (11.7)	367 (19.3)	236 (15.1)	279 (17.4)
4. 자기조절		280 (8.8)	164 (12.9)	116 (6.1)	127 (8.1)	153 (9.5)
5. 원만한 인간관계		245 (7.7)	140 (11.0)	105 (5.5)	113 (7.2)	132 (8.2)
6. 화목한 가정		132 (4.2)	34 (2.7)	98 (5.2)	59 (3.8)	73 (4.6)
7. 건강		110 (3.5)	22 (1.7)	88 (4.6)	69 (4.4)	41 (2.6)
8. 기타		160 (5.0)	44 (3.5)	116 (6.1)	66 (4.2)	94 (5.9)
계		3169 (100.0)	1268 (100.0)	1901 (100.0)	1566 (100.0)	1603 (100.0)

되었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가 중요하였으며, 이어서 '시간적 여유'와 '자기조절'도 거론되었다. 이러한 반응경향성은 성별 하위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집단별로는 확실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2명 중에 거의 1명이 지적하였으나, 성인들은 '다양한 취미생활'보다 '경제적 여유'를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하위영역별 삶의 질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볼 때,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자유반응을 정리한 결과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세대별로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 '자기조절'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취'와 '원만한 인간관계' 및 '여가생활'의 세 가지 요소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과 '화목한 가정'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성인 집단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현저하게 부각되었다. 두 번째로는 '자기조절'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과 '여가생활'이 비슷한 값을 보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약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는 '경제적 요인'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에 대한 반응율이 두 번째로 나타났으나, 여자는 이와 반대로 '자기조절'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 '경제적 요인'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두 요인에 대한 반응 순서는 달랐지만, 반응율은 모두 20~25% 사이의 값을 보임으로써, 반응율이 비슷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적 요인'과 '자기조절'이 모두 20% 이상으로서 비슷하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여가생활'과 '화목한 가정'이 모두 15%에 가까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 '건강' '학업성취'가 각각 10% 미만이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세대별, 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서, 청소년은 '자기조절'과 '학업성취' 및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성인은 '경제적 요인'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 '화목한 가정'을 중요하게 지적하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별로도 남자는 보다 '경제적인 요인'을, 여자는 '자기조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표 6.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

종합	집단	전체	세대별		성별	
			청소년	성인	남자	여자
1. 경제적 요인		733 (22.9)	153 (11.9)	580 (30.3)	376 (23.9)	357 (22.0)
2. 자기조절		705 (22.0)	312 (24.2)	393 (20.6)	328 (20.8)	377 (23.2)
3. 여가생활		464 (14.5)	182 (14.1)	282 (14.7)	215 (13.7)	249 (15.3)
4. 화목한 가정		434 (13.6)	143 (11.1)	291 (15.2)	225 (14.3)	209 (12.9)
5. 원만한 인간관계		259 (8.1)	189 (14.7)	70 (3.7)	125 (7.9)	134 (8.3)
6. 건강		225 (7.0)	59 (4.6)	166 (8.7)	121 (7.7)	104 (6.4)
7. 학업성취		212 (6.6)	191 (14.8)	21 (1.1)	113 (7.2)	99 (6.1)
8. 기타		167 (5.2)	58 (4.5)	109 (5.7)	72 (4.6)	95 (5.8)
계		3199 (100.0)	1287 (100.0)	1912 (100.0)	1575 (100.0)	1624 (100.0)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의 차이

이상에서 살펴본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지각에서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에서도,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 각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청소년과 성인 세대집단이 모두 반응한 가정생활, 학교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에서는 모두 세대별 성별 이원변량분석을, 청소년 집단만 응답한 학교생활 삶의 질 수준에서는, 학업성취수준별 성별 이원변량분석을, 성인 집단만 응답한 직장생활 삶의 질 수준에서는, 직장생활 성취수준별 성별 이원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세대별 성별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세대별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F(1, 3359)=3.84, p<.05$. 한편, 세대별 주효과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F(1, 3359)=85.69, p<.001$,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F(1, 3359)=1.52, p>.05$.

가정생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세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각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남자의 경우에 청소년($M=4.73, SD=1.25$)에 비해서 성인($M=4.26, SD=1.17$)의 평균값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자의 경우도 청소년($M=4.60, SD=1.14$)의 평균이 더 높고 성인($M=4.29, SD=1.15$)의 평균이 더 낮았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보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됨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세대별 성별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표 7은 전체집단과 더불어 세대별 성별 하위 집단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이를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 집단의 평균을 보면,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정생활 삶의 질 수준의 평균이 여가생활 삶의 질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 세대집단별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욱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정생활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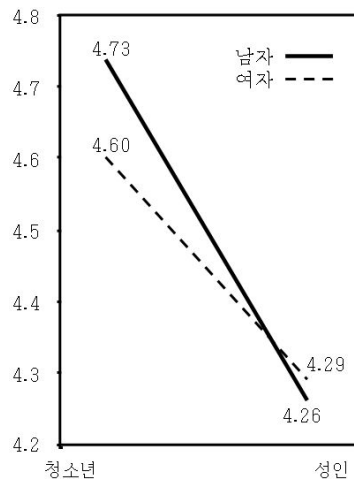


그림 1. 세대별 성별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을 약간 높게 지각하고 있는 편이며,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세대별 성별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1, 3294)=3.19, p>.05$. 세대별 주효과와 $F(1, 3294)=159.31, p<.001$, 성별 주효과는 $F(1, 3294)=7.67, p<.01$ 모두 유의하였다.

표 7에서 세대별 하위집단의 평균을 보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높았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청소년은 여가생활 삶의 질을 약간 높게, 성인은 약간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남자는 약간 높게, 여자는 약간 낮게 지각함으로써, 하위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가생활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청소년이 성인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지각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종합적인 자신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세대별 성별로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F(1, 3312)=.84, p>.05$. 세대별 주효과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F(1, 3312)=145.35, p<.001$, 성별 주효과는 없었다 $F(1, 3312)=.97, p>.05$.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의 전체 평균을 구한 결과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그리고 세대별 하위집단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에 대해 약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세대별로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욱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별로는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성취별 성별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하였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학업성취 수준별 성별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성취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F(2, 1285)=.78, p>.05$. 주효과의 경우에 학업성취별로는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F(2, 1285)=25.96, p<.001$,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F(1, 1285)=.04, p>.05$.

표 8에 전체 집단과 하위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은, 성인들이 직장에서 느끼는 삶의 질 수준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청소년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학업성적 상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집단, 하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업성취 중집단과 하집단은 동질집단으로 확인되었고, 이 두 집단은 상집단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표 7. 세대별 성별 삶의 질 수준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삶의 질	구분	세대별		성별				전체		
		청소년		성인		남자		여자		
		M	(SD)	M	(SD)	M	(SD)	M	(SD)	
삶의 질: 가정생활	4.67	(1.20)	4.28	(1.16)	4.46	(1.23)	4.41	(1.16)	4.43	(1.19)
삶의 질: 여가생활	4.40	(1.31)	3.79	(1.34)	4.10	(1.41)	3.97	(1.31)	4.03	(1.36)
삶의 질: 종합	4.58	(1.10)	4.10	(1.10)	4.32	(1.17)	4.26	(1.09)	4.29	(1.13)

학교에서의 학업성취가 높은 청소년들은 중간정도이거나 공부를 못하는 청소년들보다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여부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인집단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직업에서의 성취별 성별 직장에서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하였다. 직업성취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448)=.01, p>.05$. 주효과를 보면, 직업성취별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F(2, 1448)=161.01, p<.001$,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F(1, 1448)=.19, p>.05$.

표 8에서 직업성취수준에 따른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상집단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집단이었고, 하집단은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세 하위집단에 대한 사후검증을 Scheffe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모두 이질적인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즉 직장에서 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이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성취수준이 낮은 집단은 삶의 질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성취수준이 중간인 집단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중간 수준으로 삶의 질을 지각하였다. 요약하면 직장에서

성취수준이 높은 성인일수록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을 인식하는데 있어 성별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 한국 청소년과 성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에 토대하여, 여기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는 삶의 질에 내재해 있는 토착심리에 대해 탐구해 보기로 한다.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들에 기초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기로 한다. 그것은 삶의 질 결정요인으로서 인간관계의 영향, 자기조절의 중요성,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열망, 경제적 안정에 대한 관심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 이 외에 밝혀진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간략히 개관해 보기로 한다. 이는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삶의 질 수준 지각의 두 가지로 요약하기로 한다. 셋째, 탐색적인 이 연구가 갖고 있는 제한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후속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기로 한다.

표 8. (학업/직업)성취별 성별 삶의 질 수준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삶의 질	구분	학업성취/ 직업성취 별			성별		전체
		상	중	하	남자	여자	
		M (SD)	M (SD)	M (SD)	M (SD)	M (SD)	
삶의 질: 학교생활	4.77 ^b (1.23)	4.36 ^a (1.13)	4.22 ^a (1.15)	4.46 (1.23)	4.41 (1.16)	4.52 (1.21)	
삶의 질: 직장생활	4.73 ^c (1.17)	4.04 ^b (.93)	3.23 ^a (1.22)	4.10 (1.41)	3.97 (1.31)	4.21 (1.17)	

주) ^{a b c} Scheffe 검증 결과

삶의 질 표상을 통해 본 한국 사람의 토착심리

삶의 질 결정요인으로서 인간관계의 영향

무엇보다 먼저, 한국 사람의 삶에서 인간관계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는 화목한 가족관계가(표 2 참고), 학교에서는 친구관계가(표 3 참고), 직장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가(표 4 참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여가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가 대표적인 요소로 포함(표 5 참고)되고 있었다. 즉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족 구성원들의 화목이 가정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청소년은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좋아야, 그리고 성인은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삶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강하게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예컨대 신뢰의식(김의철, 박영신, 2004) 스트레스(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성취(박영신, 김의철, 2002) 일탈행동(박영신, 김의철, 2004c) 등에서, 인간관계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변인들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생활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인간관계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증거들(김의철, 박영신, 2001;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을 제시해 준다. 특별히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는 핵심요인으로 인간관계가 작용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인간관계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작용을 늘 하는 것은 아니다. 폐쇄적인 내집단 편애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비단 일본 사회(Yamagishi, 1998)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한국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인간관계가 한국 사회의 연고주의(안신호, 2000; 이종한, 1994)나 부정부패(한덕웅, 1994; 한덕웅, 강해자, 2000)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다 평화로운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한국인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면의 확대(박영신, 김의철, 2004a)가 요구된다.

자기조절의 중요성

한국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로 자기조절을 지적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요소로서 자기조절이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기를 계발하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는 일련의 심리적인 작용을 명명(표 6 참고)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서, 경제적인 요인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 모두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실한 노력과 의지력 및 자기계발과 책임감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자기조절의 자세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은 수십 년 동안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가치로 확인(한덕

웅, 이경성, 2003) 되었다. 또한 자기개념, 성취, 스트레스, 안전의식 등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거듭 밝혀진, 노력이나 의지 및 인내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은, 한국 사람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표상되고 있음이 거듭 확인되었다. 비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컨대 높은 교육적 성취(박영신, 김의철, 2002)를 이루기 위해서도 자기조절은 중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자기조절은 유교적 가치와 밀접히 관련(Kim & Park, 2000)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노력을 강조하는 자기조절 경향성을 유교 문화적 가치의 토대 위에서 수기(修己)의 정신과 관련하여 검토(박영신, 2001)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노력을 통한 자기조절을 매사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의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열망

어떠한 사회에서든 가정은 정신적인 안식처로서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반응을 자유응답하게 하였을 때, 화목한 가정이 대표적인 요소로 포함(표 6 참고)되었고, 심지어 여가생활에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가정의 화목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였다(표 5 참고). 더군다나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는 응답자 두 명 중에서 한 명 정도가 화목한 가족관계를 지적하였다(표 2 참고)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의 여러 하위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보여준다.

한국 사람들의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염원은 성취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에서 이미 확인된 바다. 즉 한국 성인들의 경우에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은 화목한 가정생활(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이었으며,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도 행복한 가정(박영신, 김의철, 1999)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성공적인 삶, 또는 질 높은 삶의 지표로 인식하는 것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순조로이 이루어진다(家和萬事成)는 사회 전반의 통념과도 관련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사회구성원의 기본 단위로서 가정을 중시 여기고, 또한 관계에서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 영향(Kim, 2003)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안정에 대한 관심

한국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경제적인 여유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인 여유가 가장 대표적인 요소(표 6 참고)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표 2 참고) 직장생활(표 4 참고) 여가생활(표 5 참고)에서 모두 경제적인 여유가 두 번째로 대표적인 요소였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본이 재화로서 중요한 사회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

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제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은, 1997년 IMF의 경제지원을 받는 위 기상황에 대한 체험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IMF시대 한국 사람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9)에 의하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매우 급격하게 극단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IMF의 지원대상 국가에서 벗어났지만, 한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한국 사회 전반에 경제불안 인식이 뿌 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최근 한국 청소년과 성인 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예정)에 의하면, 극단 적인 경제 불안 인식이 확인되었다. IMF시대 이 후에도 계속 한국 경제가 어렵고 기본적인 생계 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상황도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서 경제적 요인 에 대한 강한 집착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 다. Diener와 Oishi(2000)도 삶의 질이 경제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검토한 바 있다.

기타 삶의 질 관련 결과들에 대한 개관

세대집단별 삶의 질 차이

한국의 현재 세대집단 간에 삶의 질 인식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대집 단별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서 뿐만 아 니라,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삶의 질에 대 한 사회적 표상과 관련하여 보면, 성인은 청소년 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서 경제적인 여유 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 가생활(표5 참고)과 종합적(표 6 참고)인 삶의 질

에서 특별히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20대에서 60 대의 세대별로 생활만족을 예측하는 구성요소들 이 다름을 시사하는 결과들(김명소, 김혜원, 임지 영, 한영석, 2003)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대별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에서 도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성 인보다 자신의 삶의 질 수준을 더욱 높게 인식하 였다. 이러한 경향은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표 11 참고)에서만 아니라, 가정생활(표 7 참고)과 여가생활(표 10 참고)에서의 삶의 질에서도 일관 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통적이거나 진보적인 가치(김명연, 김의철, 박영신, 2000), 또는 미국에 대한 지각과 같은 정치문화 인식(김의철, 박영신, 오나라, 2003) 만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표상 및 삶의 질 수 준에 대한 지각에서도 세대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사회가 급격한 변동 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한국 전쟁과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경험한 노인세대와, GDP \$10,000 이 넘는 정보화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는 신세대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극단적으로 다른 것(김명연, 김의철, 박영신, 2000의 그림 1 참고)과도 무관하 지 않다.

성취수준별 삶의 질 차이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성취는 삶 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에 직장에 서의 성취수준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표 상에 차이가 있었다 (표 4 참고). 예컨대 직장생 활에 대한 성취수준이 높은 사람은 직장생활에서 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서 '성

취감을 지적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취수준이 낮은 사람은 경제적 요인을, 성취수준이 중간 정도인 사람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성취정도별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의 경우는 학업 성취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을(표 8 참고), 성인의 경우는 직장에서의 성취 정도가 높을수록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을(표 9 참고) 높게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 집단이든 성인 집단이든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주된 분야에서의 성취도가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삶의 질 차이

앞에서 살펴본 세대별 차이나 성취수준별 차이에 비해, 삶의 질과 관련된 성별 차이는 그렇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 있어 성별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예컨대 가정생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해 남녀 모두 가족간의 화목이,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해 남녀 모두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표상을 갖고 있었다. 학생의 경우도 학교생활에서의 삶에 질에 대해 남녀 학생 모두 친구 관계가, 성인의 경우도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해 남녀 직장인 모두 원만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성별로 반응이 유사하였다. 단 종합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서 남자는 보다 경제적 요인을 여자는 보다 자기조절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반응 비율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었는데, 특별히 여가생활에 대한 삶의 질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표 10 참고). 즉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생활 삶의 질 수준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결과(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2003)와 일치한다. 또한 성별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안녕감과 행복한 삶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유기설, 2003) 결과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별과 관련된 결과 중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세대 변인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이다. 즉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의 경우, 청소년은 남자가 여자보다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였으나, 성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이 약간 더 높았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성인 시기를 비교해 볼 때, 남자들의 가정생활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이 여자보다 훨씬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참고).

삶의 질 구성요소로서 신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지각만이 아니라 건강과 같은 신체적인 측면도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즉 이 연구에서 신체적인 건강은 가정생활(표 2 참고), 여가생활(표 5 참고) 및 종합적(표 6 참고)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서 포함되었다. 비록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자유반응을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요소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삶의 질을 연구할 때, 생활에서의 심리적인 만족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기능도 중요한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 수준을 전반적으로 볼 때, 자신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해 중간이거나 중간보다 약간 높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삶의 질이 세계 28위(중앙일보, 2004년 7월 16일 자)로 최근에 밝혀졌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지각하는 수준은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유엔개발계획이 공개한 ‘인간개발지수 2004’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을 달리 했을 때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가 한국 사람을 전국적으로 무선 표집한 대표적인 결과가 아니라 경인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일단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 수준과 주관적인 안녕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표보다 낮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삶의 질 수준을 하위영역별로 비교해 볼 때,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정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즉 성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 수준 평균이 가정생활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장생활, 여가생활의 순서이고, 청소년의 경우도 가정생활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 여가생활의 순서로 나타났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이 밝혀졌지만, 이 연구는 탐색적으로 시도된 것이므로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고 후속연구에서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대 내에서의 재분석과 세대 간으로의 확대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삶의 질을 분석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세대집단 내에서 각각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초 중 후기의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간에 어떠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지, 성인 집단 내에서도 청소년의 학부모의 입장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집단과,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사집단 사이에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성인집단은 평균 40대의 학부모와 교사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인집단의 경우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사회적 표상과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에서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서경현과 김영숙(2003)이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결과, 독거노인이 동거노인에 비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노인과 동거노인은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예언변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관계문화에 토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의 거주형태는 삶의 질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나 교사에 해당하는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최근 노인의 주관

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박근석, 한덕웅, 이주일, 2004), 추후연구에서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 구성요인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 이렇게 노인집단으로 세대별 비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이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의미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과 부모간의 비교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청소년과 성인 집단 각각의 삶에 질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를 짝 지어 분석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삶의 질이 상호 어떠한 관련을 갖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다면, 의미있는 결과들이 밝혀진 것으로 예측된다. 특별히 가정에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을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에서 검토한다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가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모가 표상하는 것과 자녀가 표상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동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 검토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종합적인 삶의 질과 네 하위영역에서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이, 다른 변인들과는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결과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배경변인으로서 연령이나 사회경제적지위라든가, 심리특성 변인으로 자기효

능감(Bandura, 1997) 또는 생활만족도, 행동특성 변인으로 성취도 등과의 관계를 양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각된 통제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의미있는 결과들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Grob(2000)는 지각된 통제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양호한 삶의 질 측정도구

토착심리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의 누적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한국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타당한 측정도구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내용의 면에서 높은 타당도뿐만 아니라, 양질의 신뢰도도 더불어 확인되는 도구가 제작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자기보고 방식만이 아니라 관찰자 보고 방식 등 측정방법의 다양화를 꾀해 나갈 필요도 있다. Lucas와 Diener(2004)는 주관적 안녕감(SWB)이 주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보고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기보고 방식이 갖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앞으로 잘 개발된 양질의 삶의 질 측정도구를 통해 밝혀지는 결과들은, 한국인의 토착심리 규명이라는 큰 틀을 짜나가는 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인의 삶의 질 지각 변화에 대한 종단적 접근

이 연구에서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삶의 질 지각 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 지각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이 연구에서는 집단간의 차이를 횡단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두 집단간의 차이를 발달적인 변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해 나감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종단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면 매우 귀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맺음말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감, 행복 등과 유사어로 함께 사용되거나 혼용되어 오기도 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러한 숙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이 연구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는 삶의 질의 표상과,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과 관련하여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 연구의 제한점에 토대해 제안한 후속연구 시사점들을 참고하여, 한국 사람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해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질’이라는 구인을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이라는 형용사를 첨가해 본다면, 삶의 질의 속성에 대한 접근이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 서양 문화에서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 모습을 강조하고 그러한 각 개인의 자기주장과 자기실현이 중요하다면, 동양 문화에서는 상호 교류하는 관계 내에서의 인간 모습을 강조하고 그러한 관계구조 내에서의 조화와 집단목표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간(人間)이라는 한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단어로 구성(Kim, 2003)되어 있음을 주목해 볼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이 동 서양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차이(Kim, 2001)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간의 격차를 수용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접근할 때, 토착문화와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지각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토착적인 심리현상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밝혀진 것들이므로, 앞으로 보다 양호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구인타당도를 밝히며 관련 변인들간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 개발: 자존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243~263.
- 박근석, 한덕웅, 이주일. (2004). 한국 노인의 신체 건강과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441~470.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인의 행복 현주소: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2003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171~172.

-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유기철. (2003). 한국 남녀의 삶의 질 차이에 관한 연구. 2003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5~236.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명소, 차경호, 임지영. (2002).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소 탐색 및 주관적 안녕감과과의 관계분석. 2002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725~731.
- 김명연,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의철, 박영신 (1999).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57~79.
- 김의철, 박영신, (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성인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103~129.
- 김의철, 박영신, 오나라. (2003). 한국 중학생, 대학생, 성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 반미감정의 심리 사회 문화적 토대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39~178.
- 박은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대학생의 한국사회 삶의 질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2004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1~162.
- 박영신. (2001). 한국인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함의: 자기, 성취, 스트레스, 안전의식을 중심으로.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01~406.
- 박영신, 김의철 (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 역.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문화심리학 총서3. 서울: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5.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6.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c).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특집호, 87~115.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서경현, 김영숙. (2003).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13~131.
- 안신호. (2000). 투표에서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경향성과의 관계 및 기저 동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45~180.
- 이종환. (1994). 연고주의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조공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중앙일보. (2004년 7월 16일 자). 한국 '삶의 질' 세계 28위.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 한덕웅. (1994).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20~53.
- 한덕웅. (2003). *한국유학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지속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5~37.
-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Diener, & Suh E. M.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185~218. Cambridge: The MIT Press.
- Diener, E. & Suh E. M. (Eds.)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The MIT Press.
- Grob, A. (2000). Perceived control and

-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nd across the life span. E. Diener, & Suh E. M.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319~339. Cambridge: The MIT Press.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19.
- Kim, U. (2001). Chapter 8. Ethnography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Aasen, H. S., Kim, U., & Helgesen, G.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in Korea: Psychological,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Rafto human rights series, vol. 1. 245~278, Kyoyookkwahaksa.
- Kim, U. (2003). Science, religion, philosophy, and culture: Psychological analysis of western, islamic, and east asian world views. Kim, U., Aasen, S., & Ebadi, S. *Democracy, human rights, and islam in modern Ira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Bergen: Fagbokforlaget.
- Kim, U. & Berry, J. W. (1993). *Indigenous psychologies: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Sage Publications.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Freie Universitat Berlin, Institut fur Allgemeine Padagogik. Zeitschrift fu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Kim, U., & Park, Y. S. (2003). Chapter 9.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K. S. Yang, K. K. Hwang, P. B. Pedersen, & I. Dai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vol. 3* pp. 171~195.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er.
- Kim, U., & Park, Y. S. (2004a).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he relational self in East Asia: A challenge to Western conceptualizations of child development and attachment.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 199. August 8-13, Beijing, China.
- Kim, U. & Park, Y. S. (2004b). Indigenous psychologies. Spielberg, C.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Park, Y. S., & Park, D. H. (1999). The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4), 451~464.
- Kitayama, S., & Markus, H. R. (2000).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realization

- of sympathy: Cultural patterns of self,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Diener, & Suh E. M.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113~161. Cambridge: The MIT Press.
- Lucas, R. E., & Gohm, C. L. (2000). Age and sex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E. Diener, & Suh E. M.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291~317. Cambridge: The MIT Press.
- Lucas, R. E., & Diener, E. (2004). Well-being. Spielberger, C.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3*. 669~676.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Park, Y. S.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vited address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 101. July, 7-12. Singapore.
- Park, Y. S. & Kim, U. (2003).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digenous analysi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Annual Report of Educational Psychology in Japan*, 42, 24~27.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 11~12. August 2-6. Xi'an, China.
- Park, Y. S., Kim, U., & Lee, S. M. (2004). The basis and evolution of trust in relational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and cultur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August 8-13, Beijing, China.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uh, E. M., & Diener, E. (2000).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to compare the quality of life of cultures. Diener, & Suh E. M.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13~36. Cambridge: The MIT Press.
- Triandis, H. C. (2000). Cultural syndromes and subjective well-being. Diener, & Suh E. M.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13~36. Cambridge: The MIT Press.
- Yamagishi, T. (山岸俊男, 1998). 信頼の構造: こ

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문화심리학
총서4. 서울: 교육과학사.

원고 접수: 2004년 11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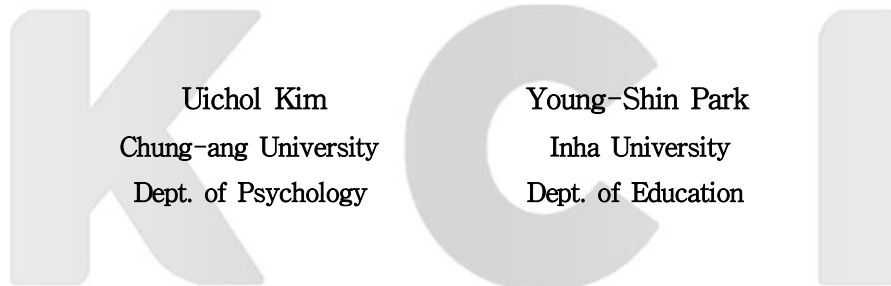
수정원고 접수: 2004년 11월 24일

게재 결정: 2004년 12월 8일

K C I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4, 973 - 1002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at home, school, work and leisure setting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Uichol Kim
Chung-ang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This article examines factors that influenc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nd factors that influence quality of life at home, school, work and leisure settings.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ical approach, a total of 3,406 participants (1,331 adolescents 2,075 adults) completed an open-end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present authors. First, for the overall quality of life, factors that raise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s are self-regul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dults, they are financial security, self-regulation, and harmonious family life. Second, adolescents report higher levels of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nd also for the quality of life at home and leisure settings than adults. Third, males respondents report higher quality of life at leisure settings than female respondents. Fourth, those respondents with higher levels of achievement report higher quality of life. Within the home setting, factors that influence quality of life for both adolescents and adults are harmonious family relationships and financial security. Within the school setting, factors that influence quality of life are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academic achievement. Within the work setting,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 quality of life is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 adult sample, those respondents with a high level of achievement report their occupational achievemen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 quality of life at work. Those respondents with moderate level of achievement report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ose respondents with low levels of achievement report financial security the most important factor. As for the leisure setting, adolescents report personal hobbies and adults report financial security as being the most important factor.

Keywords: Quality of life, indigenous psychology, family life, school life, work setting, leisure setting, human relationship, harmonious family, self-regulation

K C I